남자 실종시대의 여인들

(사사기 4:1~24)

1.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남자 실종시대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남자 실종시대의 여인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날이 샜는데도 수탉이 제구실을 못해서 암탉이 대신 울게 되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인데 요새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쨌거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두고 떠들고 간섭하

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암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날이 샜는데 울어야 될 수탉이 울지 않기 때문에 암탉이 대신 울어서 집안이 망합니다. 그렇다면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탉이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속담을 풀이하자면 '수탉이 제구실을 못해서 암탉이 망해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뜻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온 지구가 마치 여인천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민진당의 여성후보 차이잉원(蔡英文)이 국가지도자가 될 것으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나 국제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최고지도자가 2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사실 이 20여명은 많은 것이 아닌데, 여인천하의 느낌을 받는 것은 그 동안 여성 지도자를 볼 수가 없었던 상황임을 견주어 볼 때에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남성이 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센세이셔너럴 하다 보니 여인천하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은 유럽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라이베리아, 미얀마의 대통령도 여성이고, 지구촌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의장도 제닛 옐런(Janet Yellen)이라는 여성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라는 여성입니다. 또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여성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슈퍼파워 미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되는 것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천하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해는 여인천하를 이룬 여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적으로 '세상이 여인천하가 된다.'는 것은 '남자들이 남자 됨을 실종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증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성운동가나 인권평등운동가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남자 됨을 실종했다'는 것은 '남자들이 하나님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여자들에게로 옮겨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천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에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것은 남자 실종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남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맥락에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특별히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 구약 성경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민족을 무찌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선민)의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신6:10~11절에서 대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보통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선민 남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로 하나님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라는 말도 집을 얻는 것도 보통은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라는 말도 남자들의 일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라는 말도 남자들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선민 남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선민 남자들을 장갑으로 끼시고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게 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나마 남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에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가나안 전쟁을 치렀는데, 여자들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싸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남자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남자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장갑 삼으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은 여자가 남자와 함께 한다는 이유로 인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삶의 자리로 낙원인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도 하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주어진 일들도 아담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일을 아담이 하게 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을 하와가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라는 3자의 질서 잡힌 구도입니다.
메르켈 총리를 예로 보면 총리인 현재의 상황이 있고, 남편이 총리라면 총리 남편을 통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적으로는 후자가 맞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우월한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관계를 주관적인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여자 스스로

가 자기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자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 여자가 같이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내가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는 상관없이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자, 사사 드보라와 일개 가정주부인 야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솔의 야빈 왕의 학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학정에 시달리다가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택하신 사사는 특이하게도 여성인 드보라였습니다. 이후로도 여성 사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여성 사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 사사인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바락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던 납달리 지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락을 불러들입니다. 어떻게 바락을 알고서 불러들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시하셨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온 바락에게 드보라가 '야빈 왕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라고 하자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질 때에 그 사명 수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지금 바락의 반응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지는데, 드보라를 붙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법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왜 이상한 일이냐면 그 당시 배경으로는 백성을 셀 때에 남자 갓난아이까지는 세어도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백성을 계수할 때에는 20살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야빈 왕 밑에 시스라 군대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장관 밑에는 철 병거가 무려 구백 승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최첨단이고 최강이었던 철 병거를 구백 승이나 가지고 있던 군대장관 시스라와 맞서야 하는 전쟁에서 여성인 드보라를 데리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락이 그런 명령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사명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과 직접 성을 띄지를 못하고 여성인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당시 배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함께 가서 치르게 될 것이지만,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의 방점인 적장의 목을 치는 일은 네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야엘이 적장인 군대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인천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군다나 여인과는 가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전쟁을 통해 철 병거를 가진 강력한 적을 치는데, 드보라가 시작하여 가정주부인 야엘이 마치게 됩니다.

시스라가 전투에 져서 도망을 가는데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이 잘 맞이해주자 피곤했던 시스라는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야엘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왔을 때에 그 시체를 내주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로 야빈 왕과의 전쟁이 지속되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인이 관자놀이에 망치로 말뚝을 박을 수 있었겠냐는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칠 때에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즉 가정주부가 살림살이를 하던 일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가정주부도 할 수 있는 전쟁을 못 치러서 남자들이 20년 동안 학정에 시달리고 있으니,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바락이 하는 짓이 하도 우스꽝스러우니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뜬금없는 가정주부를 데려다가 적장을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면 한 가정주부가 살림살이하던 솜씨를 가지고 적장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적들 밑에서 꼼짝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남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야 말로 암탉이 우는 본문이고 암탉들의 활약이 괄목할만한 본문입니다. 암탉이 우는 것은 수탉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남자 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남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신앙상태를 포함해야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참 남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진 자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라야 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자가 남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열정과 에너지가 모세를 밀어붙이자 80세에 남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처가살이는 처갓집이 잘되기 위해서 일을 돕는 것이므로 처가살이를 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진정한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남자로서의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 실종시대에 여자라도 나서야 하므로 고마운 것이죠.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이끌어 갈 만한 남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남자 실종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애쓰고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진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품고 있는

여자가 진짜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남자와 같이 살면 하나님을 품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의 장갑이 되고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하나님을 잃고 남자가 아닌 게 되어버리면, 여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남자와 같이 살게 하시는 대신에, 남자에게 허락하실 열정과 에너지를 여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암탉이 울기 시작하는데 암탉을 나무라지 마세요. 집안이 망할 뻔 했는데 암탉이 우는 바람에 그나마 집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집안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을 책임지려고 하니 남자 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드세지는 것입니다. 집안을 책임지는 것이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갖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러면 집안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돌보고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됨을 잃어버립니다. 우쭐대서 몇 년은 잘되다가도 늘그막에 아내에게 기대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되면 여자에겐 짐 덩어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합니다. 집안과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지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본래 디자인 하셨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모습으로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의 겉모양으로 남자 여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들어온 여자가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남자들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이들과 함께 한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을 여자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2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을 갖는 남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기껏 불러낸 바락도 여자 없으면 못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적장의 목을 따는 일은 살림살이하는 가정주부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고 남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해서 20년 동안 쩔쩔맸던 구백 승의 철 병거의 대장인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으로 내가 죽인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수치입니까? 드보라와 야엘은 훌륭하고 남자들에겐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갖는 남자가 됩니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면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진 남자가 되면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참다운 직장인도 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구성원도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남자가 되십시다.

남자 없이 사는 여인들의 불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이 행복한 여인일까요? 남자 없는 시대에서 남자 일까지 다 해야 하는 여인들의 불행은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잃어 실종된 남자들이 십자가생활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